

주기도문 번역 문제

김창락*

1. 이 글은 우리말 주기도문의 번역상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현재 우리 나라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에게 통용되는 주기도문은 세 가지 형태이다. 첫째는 통일 찬송가 표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둘째는 <개역 한글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것이고 셋째는 구역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것이다. 첫째 것과 둘째 것 사이의 차이점은 첫째 것이 송영에 '대개'라는 부사어가 첨가된 점이다. 이 셋 외에도 <새 번역 신약성서>, <공동번역>, <표준 새번역>, <개역 개정판>, 가톨릭 교회의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에 주기도문이 각각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 주기도문의 우리말 번역을 검토한다는 것은 우리말 번역문이 원문의 의미를 왜곡함이 없이 올바르게 전달하느냐는 문제와 우리말 번역문이 우리말 어법에 어긋남이 없이 알맞으냐는 문제를 다루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 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다르게 실려 있는 주기도문의 본문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전승사적으로 더 오랜 층에 속하느냐를 규명하거나 주기도문의 전반적 의미를 해석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원문에 대한 주석은 번역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에 국한할 것이다. 송영 부분이 주기도문의 본문에 포함되어야 하느냐 않아야 하느냐는 본문비평적 논의도 이 글의 목적에 속하지 않는다.

2.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우선 <개역 한글판>의 번역문을 검토의 기본 대본으로 삼는다. 주기도문을 내용적으로 세 부분, 즉 부름말, 뵤말, 기림말로 나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부름말이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는 기림말이고 부름말과 기림말 사이에 있는 부분은 뵤말이다. 뵤말은 모두 여섯이다. 여섯째 뵤말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 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이다. "다만

* 한신대학교 신학과, 신약학.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단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에 상관되어 부연된 것이지 넷째와 다섯째와 여섯째 뽀말에 대등한 관계로 병렬된 일곱째 뽀말이 아니다(넷째와 다섯째, 다섯째와 여섯째 사이는 접속사 kai=and 로 연결되어 있음).

3. 이 글은 우리말 주기도문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세 단계로 나누어 논의할 것이다. 첫째는 우리말의 규범문법에 의거하여 확실하게 오류로 판정되는 것, 둘째는 표현상으로 어느 쪽이 우리말 어법에 더 어울리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셋째로 원문의 의미가 왜곡된 것으로 판정되는 것이다.

4. 우리말의 문법 규칙에 의거하여 오류로 판정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말 어학자들이 문법적으로 결정해야 할 소관 사항에 속한다.

1) 부름말:

‘아버지여’(개역, 개역 개정) → ‘아버지’

윗사람을 부를 때에 호격조사 ‘여’를 붙여서는 안 된다고 한다(구역, 새번역, 표준, 공동, 200, 가톨릭 기도서는 올바로 번역했음).

2) 둘째 뽀말:

‘나라이’(구역, 개역) → ‘나라가’

현재의 발음상으로 ‘나라’는 받침 없이 끝나기 때문에 그러한 체언에 붙는 주격조사는 ‘가’이다(새번역, 공동, 표준, 개역개정, 200, 가톨릭 기도서).

3) 둘째 뽀말:

‘하옵시며’(구역, 개역) → ‘하시오며’

넷째와 다섯째 뽀말:

‘주옵시고’(구역, 개역) → ‘주시옵고’

여섯째 뽀말 a:

‘마옵시고’(개역) → ‘마시옵고’ 또는 ‘마시고’

여섯째 뽀말 b:

‘구하옵소서’(구역, 개역) → ‘구하시옵소서’

동사의 존칭보조 어간 ‘시’는 겸양을 뜻하는 보조 어간 ‘옵’ 앞에 놓여야 한다. <표준새번역>과 <개역개정판>은 이것을 바로 잡았다. <구역>과 <개역>이 ‘구하옵소서’에서 존칭보조 어간 ‘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일관성을 결

여한 것이다.

4) 셋째 뵘말: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구역, 개역) →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주어이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루는’ 것이 아니다(새번역, 표준)

5) 셋째 뵘말:

‘이루어지이다’(구역, 개역) →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루어지이다’는 존대어가 아니다.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표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개정개역). ‘이루어지게 하소서’(공동, 200). ‘이루어지옵소서’(새번역). ‘이루어지소서’(가톨릭 기도서).

6) 넷째 뵘말:

‘오늘날’(구역, 개역) → ‘오늘’

‘오늘날’은 ‘오늘의 시대’(nowadays, these days)를 뜻하지 ‘오늘’(today, this day) 을 뜻하지 않는다(새번역, 공동, 표준, 200, 가톨릭 기도서).

7) 여섯째 뵘말 b:

‘다만’(구역, 개역) → 생략해야 함

우리말에서 부정문 다음에 긍정문을 잇는 경우에는 접속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은 앞의 말에 반대되는 경우를 말하거나 부대되는 상황을 덧붙일 때에 사용되는 접속부사이다. “오늘은 나가지 말라. 다만 도서관에 가는 건 좋다.” “가도 좋다. 다만 고생은 각오해라.” <구역>과 <개역> 이외의 모든 번역들은 이것을 바로 잡았다.

5. 다음은 어느 쪽이 우리말 어법에 더 어울리는지 우리말 문장가들 사이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1) 첫째, 둘째, 셋째 뵘말:

‘이름’, ‘나라’, ‘뜻’(구역, 개역, 표준)이라고 하는 대신에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라고 번역한 성경들이 있다(새번역, 공동, 개역개정, 200).

2) 둘째 뵘말:

‘입하다’(개역, 새번역, 표준)를 ‘오다’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다(공동, 개역개정, 200).

3) 셋째 뵘말:

‘뜻이 하늘에서 이룬/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구역, 개역, 새번역, 표준)를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다(개역개정, 공동, 200, 가톨릭 기도서).

4) 넷째 뵘말:

‘일용할’(구역, 개역, 표준, 개역개정, 200)을 ‘필요한’으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다(새번역, 공동, 표준, 가톨릭 기도서).

5) 넷째 뵘말:

‘양식’(구역, 개역, 새번역, 공동, 표준, 개역개정, 가톨릭 기도서)을 ‘빵’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다(200).

6) 다섯째 뵘말:

‘죄 지은 자’(구역, 개역)를 ‘죄 지은 사람’(새번역, 표준) 또는 ‘죄 지은 이’(개역개정)로 번역하기도 한다(<가톨릭 기도서>는 ‘잘못한 이’로 번역함).

7) 다섯째 뵘말:

‘죄 지은’(구역, 개역, 새번역, 표준, 개역개정)을 ‘잘못한’(공동, 가톨릭 기도서) 또는 ‘빛 진’(200)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8) 다섯째 뵘말:

‘사하다’(구역, 개역, 개역개정)를 ‘용서하다’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다(새번역, 공동, 표준, 200, 가톨릭 기도서).

9) 다섯째 뵘말:

‘죄’(구역, 개역, 새번역, 표준, 개역개정, 가톨릭 기도서)를 ‘잘못’(공동) 또는 ‘빛’(200)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10) 여섯째 뵘말 a:

‘시험’(구역, 개역, 표준)을 ‘유혹’으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다(새번역, 공동, 개역개정, 200, 가톨릭 기도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구역),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개역, 표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공동, 새번역, 200, 가톨릭 기도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개역개정)

11) 여섯째 뵘말 b:

'구하다'(구역, 개역, 표준, 200, 가톨릭 기도서)를 '구원하다'(새번역) 또는 '건지다'(개역개정)로 번역하기도 한다.

6. 번역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뵘말이다. 이것은 번역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원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논란이 된다. 올바른 번역에는 올바른 주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뵘말에 대한 올바른 주석은 거기에 사용된 몇몇 낱말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첫째 뵘말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뵘말의 문장론적 특징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함은 물론이며 나아가서 그것이 주기도문의 전체 뵘말 가운데서 나머지 다른 뵘말들과 비교할 때에 구조적으로 그리고 형태론적으로 어떠한 유사성과 상이성이 있는지를 판별해 내고 이것을 해석의 큰 틀로 삼아야 한다.

1) 첫째 뵘말은 문장론적으로 3인칭 단수 명령문이며 동사는 단순과거 수동태이다.

2) 둘째 뵘말과 셋째 뵘말도 역시 3인칭 단수명령문이다. 둘째 뵘말의 동사는 단순과거 디포넌트이며 셋째 뵘말의 동사는 단순과거 수동태이다.

3) 첫째와 둘째와 셋째 뵘말의 문장론적 공통점은 3인칭 단수·단순과거·명령문이다.

4) 이 처음 세 뵘말의 구문상의 공통점은 명령 동사가 문장의 선두에 놓여 있는 것이다.

5) 첫째 뵘말의 주어는 '당신의 이름'이고 둘째 뵘말의 주어는 '당신의 나라'이고 셋째 뵘말의 주어는 '당신의 뜻'이다. 여기서 '당신'은 부름말에 언급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가리키므로 세 뵘말의 주어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이 세 뵘말이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 또는 하나님께 속한 일(die Angelegenheiten Gottes, the affairs of God)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말적 계시 사건(die eschatologische Offenbarungssereignis Gottes)이 일어나기를 비는 것이다.

6) 원문에서 이 처음 세 뵘말은 접속사 없이 병렬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

적 특징은 첫째 뵤말의 의미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된다.

7) 넷째 뵤말과 다섯째 뵤말과 여섯째 두 뵤말은 문장론적으로 2인칭 단수 명령문이며 동사는 단순과거 능동태이다. 여기서 2인칭은 하나님을 가리킨다.

8) 이 네 뵤말의 목적어는 각각 '일용할 양식을', '우리 죄를', '우리들', '우리들'이다(우리말 번역으로는 여섯째 뵤말의 둘째 부분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는 '우리들'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음). 이것은 인간이 매 순간순간 직면하는 일을 가리킨다. 즉 그것은 일상적 인간사(人間事, die alltäglichen Angelegenheiten der Menschen, the daily affairs of men)이다.

9) 넷째, 다섯째, 여섯째 뵤말 사이의 구조적 특징은 이 셋이 대등접속사 kai(=and)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10) 주기도문의 처음 세 뵤말의 내용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이 셋이 접속사 없이 병렬되었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뵤말의 내용은 인간사이고 이 셋이 대등접속사 kai(=and)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은 주기도문이 구조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이중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이 이중 구조는 주기도문의 의미를 밝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되며 주기도문을 번역하는 데도 엄격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11)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첫째 뵤말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둘째 뵤말의 내용),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셋째 뵤말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실 종말적 구원 사건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동일한 사건의 세 가지 측면이다. 이 셋은 내용이 무관계한 별개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순서를 바꾸어 말하더라도 내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능동태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오게 하시는 것(=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행사하시는 것)을 뜻하며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뜻한다. 이 셋은 내용이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헬라어 원문은 이 셋을 접속사 없이 병렬했다. <구역>, <

개역>, <공동번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 <가톨릭 기도서>가 이 셋을 ‘...며 ...며’로 연결시킨 것은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말 어법에 잘 부합시킨 탁월한 번역이다. 이에 반하여 <새번역>과 <200>이 이 처음 세 뭇말과 그 다음 세 뭇말을 모두 접속사 없이 독립 문장으로 병렬시킨 것은 원문의 구조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말 어법에 가급적 어울리게 번역하지 못한 것이다.

12) 넷째, 다섯째, 여섯째 뭇말은 kai(=and)로 연결되었으며 이 세 뭇말의 내용은 인간의 일상적 삶의 문제와 관계된 세 가지 일이다. 이 가지 일은 내용적으로 서로 연관이 없고 독립적이다. <구역>, <개역>, <공동번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 <가톨릭 기도서>가 이 셋을 ‘...고...고’로 번역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 우리말 성경이 아주 초기부터 주기도문을 이와 같이 이중 구조로 번역한 전통은 길이 보전되어야 한다.

13) 주기도문은 그 당시 유대교의 회당에서 통용된 것으로 보이는 카디쉬(Kaddish)와 18 기도문(The Eighteen Benedictions)과 비교할 때에 간결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우리의 주기도문을 더 압축하고 압축하여 단 한 마디 말로 요약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전장에서 외로이 숨을 거두는 병사가 마지막으로 하는 한 마디 말이 있다면 “엄마” 또는 “하나님” 하고 부르는 말일 것이다. 이것은 다음 말을 잇기 위하여 운자를 떼는 식의 단순한 부름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그 자체이다. 즉 그것은 그가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한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름말 속에 주기도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의 근본 정신이 압축되어 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모든 역사와 행위의 궁극적 주인공으로 모시겠다고 부르짖는 간구이다. 주기도문은 철두철미 하나님을 행위의 주체로 삼고 해석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왜곡된다.

14) 주기도문에는 여섯 개(또는: 여섯 째 뭇말을 편의상 두 개로 셈하여 일곱 개로 보아도 상관없다)의 뭇말이 있다. 이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나머지 모든 뭇말의 내용도 그 속에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것이겠는가? 공관복음서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선포는 예수의 선교 활동의 중심 내용이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죄를 짓는 일이 없을 터이니까 죄 용서를 받을 필요도 없게 되고 더 이상 유혹과 악에 시달릴 위협도 사라진다. 그러므로

둘째 뵘말이 주기도의 모든 뵘말을 가장 잘 대표한다고 보는 것은 매우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주기도문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비는 것을 맨 앞에 놓았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사건(=능동태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사건)을 첫 번째 자리에 놓은 것은 그것을 종말적 구원 사건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선포는 없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다거나 하나님이 예수를 거룩하게 하신다거나 예수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 ‘영화롭게 하다’는 ‘거룩하게 하다’의 동의어로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영화롭게 하다’가 ‘거룩하게 하다’와 마찬가지로 종말적 구원 사건을 서술하는 말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 밖에도 특히 구약의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장차 손수 행하실 종말적 구원 사건을 “내가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말로 여러 번 표현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의 첫째와 둘째 뵘말은 종말적 구원 사건에 대한 요한복음 및 예언서의 전통과 공관복음의 전통을 병렬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5) 첫째 뵘말의 우리말 번역은 크게 두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¹⁾

(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²⁾

(가)에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소서”(200)라는 번역도 의미상으로 이 부류에 귀속된다. 거룩하게 하는 행위의 주체를 표시하지 않고 “이름이 거룩하심이 나타나옵시며”³⁾, “이름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옵시며”⁴⁾,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⁵⁾도

1) <구역>, <표준 새번역> 외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신학월보>(1903), <신약전서>(1904, 1906), <국한문 新約全書>(1906), <찬송가>(1908), <구세군가>(1927), <신당찬송가>(1931), <아동찬송가>(1936), <찬송가>(1949), <새찬송가>(1962), <개편찬송가>(1968).

2) <개역>, <개역개정>, <통일찬송가>.

3) <미이미교회강례>(1890), 성서번역자회(H.G. 아페젤러)의 <마태복음>(1892), <성경문답>(1895), <세례문답>(1895), <원입교인규도>(1895), 성서번역자회의 <마태복음>(1895, 1896), <신약전서>(1895), <찬미가>(1897, 1900).

4) <텐류성교공과>(1862-64), <그리스도 문답>(1893), <예수교 문답>(1894), <구세교 문답>(1895), <찬양가>(1894, 1895), <삼요록>(1894), 성서번역회의 <마태복음>(1898), 성서번역회의 <신약전서>(1900), <사사성경>(1910), <공도문>(1930), <천주교십이단>(1935), <四史聖經>(1939), <공도문>(1939), <수진일과>(1959), <공도문>(1966).

5) <가톨릭 기도서>(1972), <공도문>(1966).

이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나)에서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행위의 주체는 우리들, 즉 인간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받들게 하옵소서”(새번역),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공동번역)도 의미상으로 이 부류에 속한다.⁶⁾ 대다수의 영어 및 독일어 번역본은 수동태 문장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는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신지 사람인지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았다. 더욱이 “Dein Name werde geheiligt”라는 독일어 번역과 달리 영역본은 거의 모두 “Hallowed be your name”이라는 형태로 번역했기 때문에 헬라이어 원문에 대한 전이해가 없는 거의 모든 일반 언중(言衆)이 그것을 수동태 문장으로 이해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hallowed를 ‘성별된/거룩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보기 때문에 “Hallowed is your name”을 “Holy be your name”과 동일한 문장으로 여기고 “Hallowed be your name”을 기원문(祈願文)으로 해석하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빈다”는 의미로 이해할 것이다. 독일어 번역은 werde geheiligt로 번역했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렇지만 그 수동태의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도록 미결로 둔 셈이다. 더욱이 영어 번역은 수동태 문장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오히려 주어의 상태를 서술하는 문장으로 오해되기 쉽다. “행복하기 바란다”, “순결하기 바란다”는 말은 어떤 동작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표현이다. 따라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바란다”는 표현은 “왕 만세”(Long live the king!)라는 말이 왕에 대한 환호이듯이 “당신의 이름은 거룩합니다”라는 의미의 기림말(doxology)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결국 “Hallowed be your name”이라는 문장의 문장론적 구조를 “Blessed be God”(“하나님을 찬양합니다/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고후 1:3)라는 문장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곡해하게 된다. 여기에서 (나)와 같은 그릇된 번역이 싹트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16) 첫째 뵘말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먼저 ‘당신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 붙여진 이름표/딱지 또는 하나님께 속한 무엇을 가리

6) “Bring alle Menschen dazu, dich zu ehren”(Die Gute Nachrichten), “May your name be kept holy”(An American Translation), “Help us to honor your name”(CEV), “May your name be made holy”(JB), “May your holy name be honored”(Good News Bible), New Living Translation), “We honor your holy name”(Living Bible) 따위의 번역들도 이 부류에 속한다.

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 즉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 시편 103편 1절에는 “여호와를 송축하라”와 “그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가 병행대구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찬송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송축/찬송하는 것을 뜻한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시 145:2)에서 ‘주와’ 주의 이름은 완전한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곧 주님 자신을 찬양하는 것이요(시30:5; 34:3; 44:8; 68:4; 72:19)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요(시 5:11; 69:36)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요(시 33:21)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요(시 91:14; 궤 39:7)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시 86:11; 말 2:5)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요(시 79:6; 116:4,13,17)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요(시 20:7)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이요(시 74:10,14)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망령되이 대하는 것이요(출 20:7)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위하여’는 ‘하나님을 인하여/위하여’라는 뜻이다(시 23:3; 25:11; 31:3 등등).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뜻이요(시 75:1)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시 74:7)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말은 우리의 도움(=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요(시 124:8)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시 115:1)라는 간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뜻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성서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눅 1:49; 요 22:28; 딤후전 6:1; 계 16:9) 예수의 이름은 예수 자신을 가리킨다(눅 21:11; 요 1:12; 3:18; 15:21; 행 3:16; 4:10; 5:41; 8:12; 9:14,16; 10:43; 19:17; 21:13; 26:9 등등).

17) ‘거룩하게 하다(hagiazain)라는 낱말의 의미는 이 동사의 목적어가 무엇이나에 따라서와 주어가 무엇이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타동사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 기능은 그 목적어에 동작을 가해서 그 동사가 표현하는 상태 또는 성질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서술하는 것이다. ‘뜨거운 물을 식히다’, ‘물을 얼리다’, ‘더러운 물을 정화시키다’는 표현은 물을 다른 어떤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나타낸다. ‘음식물을 석히다’는 음식물의 성질을 석은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신구약 성서에서도 ‘하기아제인’이라는 동사가 이러한 일반적 의미로 경우도 많이 있다. 성전은 그 안에 있는 금을 거

룩하게 하고(마 23:17) 제단은 그 위에 놓인 제물을 거룩하게 한다(마 23:19). 믿는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을 거룩하게 하고 믿는 남편은 믿지 않는 아내를 거룩하게 한다(고전 7:14). 하나님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레 21:8; 겔 20:12; 37:28).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고(창 2:3; 출 20:11) 사람은 안식을 거룩하게 해야/지켜야 한다(느 13:22; 렘 17:22,24; 겔 20:20).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출 28:41).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번제단에 기름을 발라서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셨다(출 40:9-10). 이것은 또한 '성별(聖別)하다'(출 13:2; 19:23; 29:27; 민 3:13; 8:17; 신 15:19; 삼상 7:1; 렘 1:5), '성결케 하다'(출 19:10,14; 삼상 16:5; 욥 1:5; 슥 1:7)를 뜻하기도 한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동사가 위에 제시한 여러 가지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즉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 그러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상 본래부터 거룩하신 존재이므로(레 11:44,45; 19:2; 20:26; 삼상 2:2; 6:20; 왕하 19:22; 욥 6:10; 시 22:3; 71:22; 89:18; 99:3,5,9; 사 5:16,19; 6:3; 10:20; 12:6; 17:7; 29:19; 30:11,12; 40:25; 41:20; 43:3,15; 45:11; 47:4; 48:17; 49:7; 54:4; 57:15; 렘 51:5; 호 11:12; 합 3:3) '거룩하게 하다'라는 타동사의 작용 결과로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한 것으로 변하거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한 상태로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다'라는 타동사의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에도 그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나 사람이냐에 따라 그 동사의 의미는 달라진다.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다/나타내다/발휘하다'를 뜻한다.** 하나님이 예언자 에스겔의 입을 빌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겔 36:23)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하심/자기 이름이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겠다/나타내시겠다/발휘하시겠다는 것을 뜻한다. 또 같은 구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사용된 동사 형태는 히브리어로는 '니팔'(Niphal)이고 LXX에는 중간태(Middle Voice)이다. '니팔'은 재귀목적어와 결합한 뜻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며 중간태는 스스로를 위하여 그렇게 나타낸다는 것을 뜻한다.)⁷⁾ "이와 같이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

7) 에스겔 38:16 ("내가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겠다")의 동사도 '니팔'이다. 에스겔 20:41 ("내가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다"), 에스겔 28:22("내가 그 가운데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게 하리니”(겔 38:23).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히브리어로는 ‘히트파엘’(Hithpael)인데 재귀목적어와 결합된 의미를 나타낸다.

사람이 주어로 등장하면 이 동사는 ‘하나님을/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다/대하다/받들다’를 뜻한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장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자손은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할 것이다”(사 29:23)라고 하셨다.⁸⁾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민 20:12) 하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다’는 ‘나를 거룩하게 하다’를 번역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다/받들다’는 뜻이다.⁹⁾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 하여라”(사 8:13). ‘거룩하다 하여라’는 ‘거룩하게 하여라’를 번역한 말인데 그것은 ‘거룩하게 여기다/받들다’를 뜻한다.

때에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28:25; 39:27 (“내가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도 ‘니팔’이다.

이 밖에도 레위기 10:3; 22:32; 사 5:16에도 하나님을 주어로 하고 ‘니팔’이 사용되었다. <개역>은 모두 수동태 문장으로 잘못 번역했고 <개역개정>은 레위기 10:3만 ‘니팔’ 문장으로 올바르게 번역했고, <표준 새번역>은 레위기 10:3; 22:32만 ‘니팔’로 올바르게 번역했고, <공동>은 레위기 22:32을 수동태 문장으로 잘못 번역했다.

레 10:23 “나를 아끼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개역개정, 표준, 공동), "I will show myself holy"(NRSV), "an ihnen erweise ich mich heilig"(ZB).

그러나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개역), “I must be treated as holy”(NEB), “I will be sanctified in them”(AV)으로 번역하면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바뀌어버린다.

22:32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니”(표준)

그러나 <개역>은 ‘거룩하게 함을 받다’로, <공동>은 ‘존대를 받다’로, AV와 NEB는 be hallowed로 잘못 번역했다.

사 5:16 “거룩하신 하느님은 정의로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리라”(공동)

“and the Holy God shows himself holy by righteousness”(NRSV,NEB)

“God the Holy One has displayed his holiness by his justice”(JB)

그러나 <개역>, <표준>은 ‘거룩하다 함을 받다’로 부적절하게 번역했다. AV도 “and God that is holy shall be sanctified in righteousness”로 부적절하게 번역했다

겔 20:41은 우리말 모든 번역본과 NRSV, JB가 올바르게 번역했는데 AV는 “I will be sanctified in you”로, NEB는 “I will have your worship”으로 부적절하게 번역했다. 겔 28:22,25는 모든 우리말 번역본과 NRSV, JB, NEB가 올바르게 번역했는데 AV만 “I shall be sanctified in her/them”로 부적절하게 번역했다. 겔 38:16과 39:27도 AV만 부적절하게 번역했다.

8) “그들이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 것이다”(표준 새번역). “내 이름을 거룩하게 찬양하리라. 야곱의 거룩한 이를 신성하게 기릴 것이다”(공동).

9) <공동번역>은 ‘내 영광을 드러내다’로 번역함.

18) 첫째 뵘말은 3인칭 단수 수동태 명령문이다. 수동태 명령문의 주어는 ‘당신의 이름’이다. 수동태 명령을 능동태 명령으로 바꾸면 ‘당신의 이름’은 ‘거룩하게 하다’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고 ‘당신’이 주어가 되니까 3인칭 명령문은 2인칭 명령으로 바뀐다. 이 경우에 ‘당신’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다. 이 기도문을 말하는 주체는 ‘우리’이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비는 것이다. 능동태 동사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비는 것이다. 여기서 ‘당신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하신 정체를 드러내신다는 것을 뜻한다.** 이 말은 결코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가 거룩한 것이 되도록 변화시킨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행위는 계시 사건이다. 이러한 계시 사건은 영지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영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정보 전달의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하신 정체를 드러내시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역사에 개입하셔서 자기의 위력을 행사하시는 데서 일어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종말적 구원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을 뜻한다.** 이 동사의 시제와 법이 단순과거 명령법이라는 사실이 이 일의 종말론적 성격을 잘 나타낸다. 주기도문 전체에서 여섯(또는: 일곱) 뵘말에 표현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첫째 뵘말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¹⁰⁾

첫째 뵘말을 2인칭 능동태 명령문으로 바꾸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 당신의 거룩하심/거룩하신 정체를 드러내십시오”로 된다. 신약성서에서 ‘거룩하게 하다’라는 낱말의 의

10) 첫째 뵘말의 행위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철저하게 밝힌 대표적인 학자는 다음과 같다.

E. Lohmeyer, *Das Vater Unser*. Göttingen 1952.

Philip B. Hahner, *Understanding the Lord's Prayer*.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5.

J. Gnllka, *Das Matthäusevangelium* (Herder Kommentar I-1). Freiberg et. 1986.

D. A. Hagner, *Matthew 1-13* (WBC 33a). Dallas, World Books, 1993.

W. Grundmann, *Das Evangelium nach Matthäus*. Berlin, 1990.

Douglas R.A. Hare, *Matthew* (Interpretation Commentary). Louisville, 1993.

W. C. Allen,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I.C.C. XXIII). Edinburgh, 1972.

조경철, 마태복음 I(100 기념주석 31-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미와 가장 유사한 낱말을 찾는다면 그것은 ‘영광스럽게 하다/영광을 돌리다’(doksazein)이다. 요한복음에는 주기도문이 전승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주기도문의 첫째 뽀말의 내용을 ‘독사제인’이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능동태 문장으로 표현한 말쑤이 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요 12:28).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정체를 드러내시라고 하나님께 비는 간구이다. 명령 동사는 단순과거 능동태이다. **요한복음의 이 표현 형식은 주기도문의 첫째 뽀말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말로 적절하게 번역하는 데 좋은 시금석이 된다.**

19) 첫째 뽀말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번역하면 거룩히 여기는 행위의 주체는 우리 인간이다.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비는 것이다. ‘우리’의 범위를 더 확대하면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비는 것이 된다.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존경하다’, ‘싫어하다’, ‘미워하다’ 따위의 동사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상태나 태도를 서술하는 동사이다. 이러한 종류의 동사에는 지속성이 내포되어 있다. 즉 이러한 동사는 단발적으로 수행되는 동작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사가 기술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있음을 서술한다. 영문법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동사는 진행형으로 만들 수 없으며 단순형 속에 진행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와 달리 ‘때리다’, ‘부수다’ (‘거룩함을 드러내다’라는 의미의) ‘거룩하게 하다’ 따위의 동사는 단발적으로 수행되는 동작을 서술한다. 이러한 동작은 한 토막 한 토막 더 작은 단위로 분절할 수도 있으며 그 분절된 모든 단위의 동작들을 하나로 응축시켜 일회적인 점적(點的) 행위로 묘사할 수도 있다. 헬라어에서 단순과거형 명령법이 사용될 수 있는 동사는 이러한 종류의 동사에 한정된다. 주기도문의 모든 뽀말은 단순과거 명령문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단번에 일으켜 주실 구원 사건을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처음 세 뽀말은 하나님께 그의 종말적 구원 사건을 결정적으로 일으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다. **첫째 뽀말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행위의 주체에서 행위의 객체로 바뀌어 버리고 단순과거 명령법이 뜻하는 즉각적, 유일회적 사건으로서의 의미가 사라져 버린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인간이 일상적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야 할 일에 속한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지 아니 하시고 당장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의 거룩하신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의 위력을 행사하시면 그 결과로 악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기도하는 당사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미 알고 있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받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고 간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악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고 간구한다는 것도 주기도문의 모든 뵘말이 담고 있는 내용의 직접성과 절박성에 배치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도와 주십시오고 간구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뵘말의 내용을 수행하시는 주체는 오로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피사역자로 중간에 내세우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일을 수행하도록 시키시고 자신은 한 걸음 물러나 계시는 사역의 주체가 아니시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은 무대 뒤에 숨어 계시는 연출자가 아니라 무대 위에 직접 등장하셔서 사건을 일으키시는 출연자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서술되었다. **주기도문의 모든 뵘말에서 인간이 행위의 주체로 등장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건의 수혜자일 따름이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잘못된 번역이 오랫동안 통용되면 결국에는 둘째 뵘말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도와 주시오며”로, 셋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로 번역하게 될 것이다.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간구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윤리적 참여에 역점을 둔 것이었다면 다섯째 뵘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이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그와 정반대이다. 첫째 뵘말을 잘못 번역하게 된 원인은 기도와 실천적 윤리를 결합시키려는 동기에서 찾을 수 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적용하려고 해석할 때에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우리의 올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대접받는다”라는 답변을 유도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받드는 주체는 우리 인간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러한 해설은 주기도문에 대한 학문적 주석의 결과물이 아니고 주기도문의 내용을 그리스도인의 일상 생활에 적용시키려는 교육적, 교훈적 의도의 결과로 생긴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주기도문을 해설한 맨 첫 사람은 어그스틴이었으며 루터는 어그스틴의 이러한 해설을 그의 두 <교리문답서>에 그대로 옮겼으며 칼빈도 그의 <기독교 강요>에 이러한 해설을 답습했다. 1938년의 우리말 <개역판>이

<구역>의 모범을 버리고 이러한 해설을 채용한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것은 아마도 1887년 판 일본어 명치(明治)역본과 1917년 판 일본어 대정(大正)역본의 영향이라 짐작된다.¹¹⁾ 이 두 일본어 역본에 어떤 경위로 이러한 해석이 채택되었는지는 우리에게 밝혀지지 않았다.

20)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가톨릭 기도서)라는 번역은 의미 전달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며 원문의 내용에도 별로 배치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하나님 자신이 거룩히 빛나시게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행위의 주체로서의 역할이 전혀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기도의 말로서는 부적절하다.

1) 첫째 뱀말의 의미와 번역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하기아제인’이 ‘당신의 이름을 목적어로 하는 경우에 주어는 누구인가?’

(1) 하나님?

(2) 사람?

(3) 하나님 + 사람?

나) 하나님이 주어이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이 거룩하심을/자기의 거룩하심을/자기의 거룩하신 정체를 드러내신다는 뜻이다. 사람(=우리 또는 온 세상)이 주어이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대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두 가지 용례는 구약성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주기도문의 첫째 뱀말에서 어느 쪽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판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철저히 명심해야 할 것은 처음 세 뱀말이 문장론적으로 꼭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3인칭단수 단순과거 명령형 + 당신의 이름/나라/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기를 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오게 하시기를 빈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심으로써 이루실 종말론적 구원 행위이다. 첫째 뱀말의 의미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심으로써 자기의 거룩한 정체를 드러내시는 종말론적 구원 행위이다. 이 세 뱀말은 하나님께 그의 즉각적인 개입을 호소하는 간구이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행위자이다.

다) 사람이 ‘하기아제인’의 주체로 등장하는 것은

a)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행위를 인간의 일상적 윤리적 삶의 행위로 바

11) "願はくは御名の崇められん事を"(1887明治 역/1917년大正 역).

꾸는 것이며

b) 단순과거 명령법이 뜻하는 단발적, 즉각적 성격의 사건을 심리(心理) 동사의 현재형 명령법이 뜻하는 지속적, 반복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며

c) 첫째 뵤말을 둘째와 셋째 뵤말과 같은 문장 구조로 보지 아니 하고 첫째 뵤말을 하나님에 대한 간구(=청원)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림말(doxology)처럼 들리게 하는 것이다

라)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의 거룩하신 정체를 드러내시면 그 결과로 인간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대하는/받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정체를 드러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첫째 뵤말 속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비는 소원이 곁들여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겠다는 결의가 곁들여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¹²⁾ 설령 주석적으로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번역하는 것은 억지이다. 둘째와 셋째 뵤말 속에도 인간의 결의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도록 하여 주시오며”라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번역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겠는가!

마) 유대교 기도문의 예문은 주기도문의 첫째 뵤말의 ‘하기아제인’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결정 짓는 데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두 가지 경우를 다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¹³⁾

바)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정체를 드러내셔서 종말적 새로운 구원의 질서를 세워주시기를 비는 첫째 뵤말 속에 기도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겠다는 결의/소원이 곁들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

12) Strack-Billerbeck(*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I*, 408-418)은 이러한 해석의 대표자이다. 그는 첫째 뵤말의 ‘하기아제인’의 행위자가 하나님이심을 주석적으로 철저히 증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뵤말 속에 기도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겠다는 결의가 내포되어 있다고 덧붙인다.

13) “Heilige deinen Namen wegen derer, die deinen Namen heiligen, und heilige deinen Namen in der Welt und erhebe und erhöhe unsern Horn. Gepriesen seist du Jahve, der du deinen Namen heiligst vor vielen”(Tanna d’be Elijahu 21 Ende, Strack-Billerbeck, aaO., 409, 411).

(Gott spricht zu Israel:) "Wenn ihr meinen Namen heiligt, so werde ich auch meinen Namen heiligen"(SLv 18,6 [339a], Strack-Billerbeck, aaO., 413).

"Verherrlicht und geheiligt werde sein großer Name, der die Welt erneuern und die Toten beleben und die Lebenden erlösen und die Stadt Jerusalem erbauen wird"라는 Kaddish의 첫 문장의 heiligen의 의미상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수도 있다.

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덮어놓은 채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로 일어날 인간 측의 일만을 번역에 옮기는 것은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는 폭행이다.

7. 예수의 선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오다’라는 표현은 정형화된 문구이다. “당신의 나라가 오라”는 3인칭 명령문을 2인칭 명령문으로 바꾸면 “당신의 나라를 오게 하십시오”라 된다. ‘나라를 오게 하다’라는 표현 대신에 ‘나라를 세우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다. Kaddish의 둘째 뱀말은 “May he establish his kingdom in your lifetime and in your days and in the lifetime of all the house of Israel, quickly and soon”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다’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다’는 동의어이다. 또 이 말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다/왕권을 행사하시다/통치하시다’와 같은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재자로서 그의 통치권을 회복하심으로써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종말론적 구원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을 뜻한다.

8.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고 바꾸는 것이 우리말 어법에 부합되는지 논의해야 한다. ‘이루어진’이라는 시제적 표현이 원문에 의미에 부합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루어짐 같이’라고 표현하면 시제상의 난점은 해결된다.

9. 넷째 뱀말에서 ‘오늘’을 ‘주시옵고’ 앞에 놓아야 한다.

10. 여섯째 뱀말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는 표현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보다 원문의 의미에 더 가깝다.

6a 뱀말의 구조는 ‘2인칭단수 부정 명령동사 + 목적어(=우리들) = 부사구(=시험 속으로)’이다. 원문을 축자적으로 번역하면 “우리를 시험 속으로 이끌지/시험에 몰아넣지 마십시오”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또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의 구문은 ‘2인칭 사역동사 부정 명령문 + 우리들 + 들다 + 시험에 이다. 원문에는 명령문의 주어가 행할 행위만 서술되었지 목적어가 피사역자로서 행할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원문의 형식을 고수해서 “우리를 시험에 끌어넣지/인도하지 마십시오”번역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the sinners to repentance"라는 문장에서 ‘to repentance’라는 부사구에는 영어나 헬라어로는 동사적 의미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번역하는 자연스

럽다. 그렇다면 into temptation이라는 어구 안에 우리말로로는 '시험에 빠지다/시험에 들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뱃말의 우리말 번역에는 동사가 두 개 등장한다. 그 하나는 우리 쪽에서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들다/빠지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를 가리키는 '하다'이다. 이 뱃말은 부정문이다. 문제는 이 부정의 뜻을 어느 쪽 동사에 결부시키는 것이 원문의 의미에 더 부합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를 부정하는 데 역점을 두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오며" 또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오며"(Make/Help us not fall into temptation)으로 번역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행위에 역점을 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Do not make/let us fall into temptation)으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 '시험에 들지 말게/않게 하는 것'은 시험에 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감독/작용하는 것을 뜻한다. '시험에 들게 하지 않다'를 명령문으로 바꾸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가 되며 이것을 뱃말로 바꾸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가 된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시험에 드는 행위를 유발/촉발하지 말라'는 뜻이다. 즉 시험에 들도록 작용하지 말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고려하면 첫째 번역을 선택해야 할 것이며 원문의 표현 자체를 고려하면 둘째 번역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다만 첫째 번역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오며"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오며"보다 어법적으로 더 정확한 표현임을 판정해야 한다.

11.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개역개정, 공동, 새번역, 표준, 200)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구역, 개역)보다 원문의 의미에 더 가깝다. 아무개에게 무엇이 있다는 말은 아무개가 무엇을 가지고/소유하고 있다(Someone has something)는 것을 번역한 말이다. 아무개에게 집/재산/부모/재능/교양이 있다는 말은 아무개가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는 지를 일반적으로 서술하는 말이다. 이 상(賞)/재산/밥상/자리는 아무개의 것이라는 말은 아무개의 형편을 일반적으로 서술하는 말이 아니고 이 상/재산/밥상/자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 지를 서술하는 말이며 그 말속에는 다른 사람은 이것을 넘볼 자격이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로마 황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다.

	(구역성경 1911) (합동찬송가 1967)	(구역성경 1911) (합동찬송가 1967)
A.부름말	0.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0.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B.뵘말	1.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2. 나라이 임하옵시며 3.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4.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 옵시고 5.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 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6a.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b.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1.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2. 나라이 임하옵시며 3.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4.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 옵시고 5.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 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6a.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b.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C.기림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안 1

- 0.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1.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 2. 나라를 오게 하시오며,
- 3.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 4. 필요한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고,
- 5.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 6a.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b.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시안 II

0.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1.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 주시오며,
 2.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오며,
 3.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같이/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4.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고,
 5.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 6a.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 b.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시안 III

0.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1.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2.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3.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4. 필요한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5.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한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 6a.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 b.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역개정판)

0.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1.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2. 나라가 임하시오며
3.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4.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5.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 6a.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 b.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표준새번역)

0.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1.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2.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3.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4.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5.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 6a.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 b.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공동번역)

0.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1.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2.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3.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4.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5.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6a.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b.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번역 신약)

0.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1.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받들게 하옵소서.

2.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3.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4.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5.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한 것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6a.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b.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200주년 성서)

0.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1.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소서.

2.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3.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4. 우리가 필요한 빵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5.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빛진 이들을 용서했듯이
우리의 빛을 용서하옵소서.

6a.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b.오히려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가톨릭 기도서)

0.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1.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빛나시며,
2. 그 나라가 임하시며,
3.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4.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5.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 6a.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b.악에서 구하소서, 아멘.